

글로벌대학 시대, 지역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가능성

강원대 삼척도서관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tential of Place-Based Humanities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3Days Humanities Program"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Library

유춘동*

국문요약 지역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가 심화되면서 대학의 인문교양교육은 강의실 중심의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지역의 공간과 문화를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성찰을 함께 확장하는 교육 방식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글로벌대학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운영된 강원대 삼척도서관의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삼척에서 배우고 쉬다'를 대상으로, 지역 연계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운영 과정과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은 학습과 휴식을 결합한 런케이션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 인문학 강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지역을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머물며 이해하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방식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넓히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교육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 사례는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이 글로벌대학 시대 지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인문교육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글로벌대학, 체류형 인문교양교육, 지역-대학 연계, 런케이션, 도서관 기반 교육, 지역 이해와 성찰

- 차례**
1. 서론
 2. 글로벌대학 정책과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이론적 맥락
 3. 강원대 지역-대학 연계 체류형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4.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확장 가능성
 5. 마무리와 과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의 심화, 산업 기반의 약화는 개별 정책이나 단기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축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역을 행정 단위나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 접근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지역의 삶과 문화, 일상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 요구된다.¹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대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체류형 교육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학습과 경험을 함께 축적하는 교육 방식으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넘어 지역

1. 서론

지역 소멸과 산업 공동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늘날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조진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3(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3~27쪽.

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문교양교육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간과 사람을 교육의 내용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강의실 중심 교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자체를 살아 있는 학습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

최근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대학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대학 정책은 대학을 교육과 연구만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함께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육 역시 지역사회와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 생활환경을 교육 과정 속에 담아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문교양교육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³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학습(Learning)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런케이션(Learncation)은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⁴ 학습을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을 걷고 머물며 경험하는 과정으로 확장함으로써 교육과 일상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지역의 공간과 사람, 문화는 학습의 배경을 넘어 교육의 내용이 되며, 참여자는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이해해야 할 생활 세계로 받아들이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체류형 교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산과 바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과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된 지역 공동체는 교육과 지역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강원대학교(이하 강원대로 약칭) 삼척도서관이 기획·운영한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삼척에서 배우고 쉬다’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 행사나 관광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았다.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산, 시장과 생활 문화, 인문학 강연을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엮어 참여자가 지역을 여러 층위에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간을 캠퍼스 밖으로 확장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 글은 강원대 삼척도서관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삼척에서 배우고 쉬다’를 중심으로 글로벌대학 시대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운영 방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자원을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방식과 체험 중심 학습이 갖는 교육적 특징, 대학 도서관이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문교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이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교육 방식으로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 연계 인문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글로벌대학 정책과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이론적 맥락

글로벌대학 정책은 고등교육을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체계로만 이해해 온 기존 시각을 전환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학을 지역 외부의 지식 생산 기관이

2 채광수, 「지역과 연계한 서원 체험학습 교재 개발: 대구지역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90, 민족문화연구소, 2024, 319~349쪽.

3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4~17쪽.

4 우대식, 「지방소멸 시대, '관계인구' 확산을 위한 '상생형 런케이션' 교육 모델 개발 연구: '런케이션 인 고성'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실천연구』 9(2),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2025, 101~118쪽.

5 황만진,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삼척에서 배우고 쉬다」 운영, 『강원일보』, 2026.2.9.

나 인력 공급 거점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주체로 만드는 것이 이 사업과 정책의 핵심이다.⁶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대학의 연구와 산학협력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인문교양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⁷

그동안 인문교양교육은 보편적 가치와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교육 내용 역시 비교적 탈지역적인 성격을 지녀 왔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정체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문교양교육 역시 추상적 보편성에 머무르기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세계를 매개로 한 구체적 성찰의 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문학의 본질적 기능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지역이라는 현실적 맥락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체류형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체류형 교육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머물며 학습과 경험을 함께 축적하는 교육 방식으로, 짧은 방문이나 견학 중심의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정한 시간 동안 한 공간에 머무는 과정은 지역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과 해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며, 학습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환경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게 된다. 이때 학습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습득을 넘어 이동과 체험, 대화와 성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과정으로 확장된다.

인문교양교육에서 이러한 체류형 접근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지역의 골목과 거리, 시장과 문화유산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경험은 텍스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맥락을 체감하게 한

다.⁸ 인문학적 성찰 역시 추상적인 개념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결국 지역은 교육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가 되고, 학습자는 그 공간을 읽고 해석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최근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는 런케이션(Learncation)은 체류형 교육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다. 학습과 휴식을 결합한 런케이션은 교육을 긴장과 성취만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사유와 재충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이해한다. 이는 인문교양교육이 지향하는 성찰 중심의 학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여유로운 체류와 휴식은 학습의 밀도를 낮추는 요소가 아니라, 사고를 환기하고 경험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대학 정책의 관점에서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맺는 관계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학은 지역을 교육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나 현장실습의 장소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함께 교육 내용을 만들고 운영하는 협력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생활양식은 부가적인 학습 자료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중심 내용으로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 도서관의 역할도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⁹ 도서관은 그동안 자료 제공과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글로벌대학 체제에서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문화·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서관이 기획하는 체류형 인문교양 프

6 정재연, 앞의 논문, 4~17쪽.

7 손혜숙, 「인공지능 시대, 서사적 상상력을 활용한 인문 교양 교육 방안 연구」, 『교양학 연구』 25,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3, 35~60쪽.

8 서보영, 「군위의 K-컬처 원형 콘텐츠와 역사문화관광의 체류형 거점화 전략: 삼촌석굴·인각사·팔공산 권역의 장소성과 관광 동선 재구성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K-Culture융합연구』 9(9), K-Culture 융합연구소, 2026, 49~74쪽.

9 정영미·강지혜·이정미,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제고: 이용자 교육 향상 전략」,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한국비블리아학회, 2025, 277~301쪽.

로그래밍은 강의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학습과 일상을 이어주는 매개 공간으로서 인문교육의 활동 범위를 캠퍼스 밖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교육의 대상과 범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교육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학습 경험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지역에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주체가 되며, 인문교육 역시 공공성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물론 체류형 교육이 지닌 가능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는 교육 방식은 시간과 예산, 공간 확보 등 현실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며, 참여 기회의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체험 활동이 교육의 중심이 될 경우에 인문학적 성찰이 단순한 경험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체험과 성찰, 휴식과 학습이 균형을 이루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글로벌대학 정책과 연계된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교육의 성과는 즉각적인 수치나 만족도보다 학습자의 인식 변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축적된다. 체류형 교육의 가치는 이러한 장기적 변화까지 포괄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교육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글로벌대학 정책은 인문교양교육의 내용과 공간, 교육의 주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류형 교육과 연계성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교육 방식으로서 지역을 배움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체험과 성찰을 결합한 학습 환경을 마련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일

은 글로벌대학 시대 대학 인문교양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강원대 지역-대학 연계 체류형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교육 내용만으로 그 성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역시 교육적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구성과 공간의 선택, 참여 대상의 범위는 교육 경험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삼척도서관이 운영한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삼척에서 배우고 쉬다’는 이러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글로벌대학 정책 아래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는 인문교양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행사형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면서 학습과 체험을 차례로 이어가는 체류형 교육을 기본 구조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 교양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운영 기간을 3일로 설정한 것도 학습자의 참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을 단편적으로 소비하는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고려한 결과이다. 하루 단위의 개별 활동을 나열하기보다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역을 이해하도록 프로그램 전체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대상의 구성 방식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함께 참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의 범위를 캠퍼스 밖으로 넓혔다. 이는 지역을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관점을 지닌 참여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강의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운영 방식에서는 참여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사전 신청을 통해 날짜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류형 교육이 갖는 시간적 부담을 줄였으며, 모든 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각 프로그램이 하나의 완결된 학습 과정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 일수에 따라 지역 특산품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참여 보상을 넘어 교육 활동과 지역경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운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에는 삼척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둘째 날에는 지역의 현재와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일정을 배치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와 사회를 성찰하는 인문학 강연을 마련하여 학습의 흐름을 완성하였다.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경험한 뒤 이를 인문학적 사유로 연결하는 과정이 하나의 교육 체계로 구성된 것이다.

첫째 날 프로그램은 삼척의 역사와 해양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형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¹⁰ 이사부와 독도, 해양 영토를 다룬 강연과 전시 관람은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소개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가와 공동체, 영토와 공간 인식이라는 보다 넓은 문제의식으로 시야를 확장하도록 구성되었다. 전시와 체험 활동을 함께 배치한 점도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참여자의 감각과 경험을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현재적 의미를 지닌 이야기로 다가가게 된다.

둘째 날에는 삼척중앙시장과 청년몰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문화와 경제를 이해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전통시장 탐방과 공방 체험은 시장을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가 축적된 생활 공간으로 바라보게 한다. 특히 청년몰은 지역 청년의 창업과 정착,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참여자들은 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가 통계나 정책으로만 설명되는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현실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셋째 날 인문학 강연은 앞선 이틀간의 경험을 성찰의 단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주제는 삼척이라는 지역적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보다 보편적인 질문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대중 강연 경험이 풍부한 강연자를 초청한 것은 학문적 깊이와 전달력을 함께 고려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의 체험과 인문학적 사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체류형 인문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효과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로그램은 체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함께 마련하였다. 숏폼 영상 공모전은 참여자들이 3일간의 경험을 스스로 정리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재구성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였다. 학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개인의 체험을 공동의 자산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삼척도서관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도서관은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기존 기능을 넘어 지역과 대학을 연결

10 차장섭, 『고요한 아침의 땅 삼척: 차장섭의 역사문화기행』(개정판, 역사공간, 2015; 신성환·유춘동, 「삼척 미로단오제의 전승 현황 및 연구사」,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15(15),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3, 127~145쪽.

하는 교육 기획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학습의 흐름과 참여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운영 기관이 아니라 지역 기반 인문교육을 조직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였다.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교육적 목표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참여자의 기대와 지역의 여건, 행정적 지원과 교육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3Days 인문·교양 클래스’는 이러한 요소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결합하면서 체류형 교육의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날짜별 선택 참여와 지역 자원의 활용, 체험 이후의 콘텐츠 제작까지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연결한 점은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이 사례는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이 특정 전공이나 대학 구성원만을 위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적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 참여 방식까지 함께 설계될 때 인문교육은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공동체를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3Days 인문·교양 클래스’는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연계 교육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사례이며, 앞으로 지역 기반 인문교양교육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만한 경험을 제공한다.

4.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확장 가능성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의 성과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 여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머물며 경험하는 공간과 시간, 사람들과의 만남은 학습 효과를 복합적으로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은 강의실 중심의

교양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축적된다. ‘3Days 인문·교양 클래스’에서도 교육의 성과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넘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학습 태도의 전환,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변화는 학습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체류형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는 강의를 통해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수강생이 아니라, 지역을 직접 걷고 살펴보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해석의 주체가 된다. 역사 전시를 관람하고 시장과 공방을 둘러보며 인문학 강연에 참여하는 과정은 각각의 활동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학습 경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역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생활 세계로 다가온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인문교양교육이 강조해 온 성찰의 과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체류형 교육에서 성찰은 강의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토론이나 과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풍경, 체험 활동 중 나눈 대화, 휴식 시간에 이어지는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학습은 일상 속에서 계속된다. 학습과 휴식이 분리되지 않는 이러한 경험은 인문학적 사유가 특별한 교육 활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에 대한 이해 역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장된다. 짧은 방문이나 관광 중심의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이 소비와 체험의 대상으로 남기 쉽지만, 일정 기간 머무르며 여러 장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이 지닌 시간의 층위와 생활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역사 전시에서 만난 과거의 이야기와 시장의 일상, 인문학 강연에서 제기된 질문은 각각 별개의 경험으로 남지 않고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다. 그 결과 지역은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삶이 함께 축적되는 장소로 이

해된다.

참여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도 체류형 교육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은 대학과 지역을 구분하던 경계를 완화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지역과 대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교류는 교육 내용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로 이어진다.

대학에 대한 인식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체류형 교육은 대학을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특히 삼척도서관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서관이 학습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대학 교육의 공간적 범위와 역할 역시 한층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교육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특징을 지닌다. 비록 운영 기간은 3일에 불과하지만, 참여자가 그 안에서 경험하는 공간과 사람,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단발성 행사와는 다른 학습 경험을 형성한다. 교육의 성과는 시간의 길이보다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으며, 연속된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동과 체험은 지역에 대한 기억을 개별 장면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축적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경험은 숏폼 영상 공모전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장된다. 참여자는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체험을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

정이며, 개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이러한 후속 활동은 체류형 교육이 오늘날의 학습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제도와 공간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특정 학과나 전공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설계된 것은 교육의 범위를 캠퍼스 밖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인문교양교육이 대학 내부의 교과과정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역 자원이 교육 콘텐츠로 새롭게 조직된다는 점이다.¹¹ 역사관과 전통시장, 대학 캠퍼스와 강연장은 각각 독립된 공간이지만, 프로그램 안에서는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은 지역의 문화와 생활 공간을 관광 자원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체류형 교육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운영 인력과 예산을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 기회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체험 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 인문학적 성찰보다 경험 자체가 강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체험과 사유, 휴식과 학습이 균형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평가 방식 역시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체류형

11 유준동, 「글로벌대학 정책과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운영 양상: 강원도와 강원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2,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6, 77~86쪽.

교육의 성과는 만족도 조사나 단기 설문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학습자의 인식 변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형성하는 관계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과 추적 조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체류형 교육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3Days 인문·교양 클래스’는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여자는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축적하였고, 대학과 지역사회는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 연결되었다.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결합함으로써 교육 경험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연계 교육을 실천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이 지역과 대학을 잇는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5. 마무리와 과제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넘어, 지역의 공간과 시간, 사람을 학습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안한다. 강원대 삼척도서관이 운영한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삼척에서 배우고 쉬다’는 이러한 시도를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사례이다.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 인문학 강연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구성은 지역을 단순한 교육의 배경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체험과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교육 내용에만 있지 않다. 교육

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완화하였고, 대학을 지역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삼척도서관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자원을 교육과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기능이 교육과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향하는 대학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대학은 지역을 연구하거나 지원하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문교양교육은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교육을 넘어 대학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는 지역을 소비하거나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세계로 이해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체류형 프로그램은 일정한 시간과 예산, 운영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간 체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일자별 참여나 모듈형 운영처럼 다양한 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만족도나 참여 인원과 같은 단기 지표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습 태도의 형성,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 직후의 평가뿐 아니라 참여자의 경험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기적인 평가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3Days 인문·교양 클래스’는 지역 자원을 교육 과정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험과 성찰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지역 연계 인문교양교육의 운영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사례만으로 체류형 교육의 일반적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교육 목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다른 지역과 대학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²

앞으로 체류형 인문교양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적인 학습 경험의 축적에 더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 지역에 머물며 관찰하고 대화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지역을 이해하는 깊이를 더해 간다. 이러한 교육이 꾸준히 축적될 때 대학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인문교양교육 역시 지역사회와 연결된 공공적 학습의 장으로 한층 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권오영, 「인공지능 시대, 서사적 상상력을 활용한 인문 교양 교육 방안 연구」, 『교양학 연구』 25,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3.
- 서보영, 「군위의 K-컬처 원형 콘텐츠와 역사문화관광의 체류형 거점화 전략: 삼존석굴·인각사·팔공산 권역의 장소성과 관광 동선 재구성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K-Culture융합연구』 9(9), K-Culture 융합연구소, 2026.
- 신성환·유춘동, 「삼척 미로단오제의 전승 현황 및 연구사」,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15(15),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3.
- 우대식, 「지방소멸 시대, '관계인구' 확산을 위한 '상생형 연계이션' 교육 모델 개발 연구: '연계이션 인 고성'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실천연구』 9(2),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2025.
- 유춘동, 「군사 접경지역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와 활용 방안」,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1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_____, 「글로벌대학 정책과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운영 양상: 강원도와 강원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2,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6.
- 정영미·강지혜·이정미, 「대학교서관의 교육적 역할 제고: 이용자 교육 향상 전략」,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한국비블리아학회, 2025.
-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조진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3(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 차장섭, 『고요한 아침의 땅 삼척: 차장섭의 역사문화기행』(개정판), 역사공간, 2015.
- 채광수, 「지역과 연계한 서원 체험학습 교재 개발: 대구지역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90, 민족문화연구소, 2024.

2. 기타 자료

- 황만진, 「3Days 인문·교양 클래스: 삼척에서 배우고 쉬다」 운영, 『강원일보』, 2026.2.9.

12 유춘동, 「군사 접경지역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와 활용 방안」,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19(1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146~157쪽.

Abstract**The Potential of Place-Based Humanities Education in the Era of Glocal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3Days Humanities Program”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Library

Yoo, Choon-Dong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 regional decline and demographic transformation reshape higher education in Korea,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move beyond classroom-centered instruction and engage more closely with local communities. Within this context, residential humanities and general education has emerged as an educational approach that uses local places, culture, and everyday life as sites of learning while encouraging both regional understanding and humanistic reflection. This study examines “3Days Humanities and General Education Class: Learning and Resting in Samcheok,” a program organized by the Samcheok Library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Glocal University initiative.

Structured around the concept of learncation, which combines learning with leisure, the program connects local history, community spaces, and humanities lectures in a sequential learning process. Rather than treating the region as a destination for short-term experience,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understand it as a lived environment through sustained engagement. The inclusion of both university members and local residents further broadens the scope of humanities education, fostering a shared learning community that extends beyond the university campus.

The Samcheok case demonstrates how residential humanities education can strengthen connec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by integrating place-based experiences with reflective learning. It also illustrates the evolving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as educational and cultural platforms that connect academic resources with regional commun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lace-based residential humanities education provides a meaningful framework for rethinking humanities education and regional collaboration in the era of Glocal Universities.

Keywords Glocal Universities, Place-Based Humanities Education, Residential Learning, University-Community Collaboration, Learncation, Library-Based Education

이 논문은 2026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8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